



국제 농업 정보(2020. 10.):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산업 및 바이오기반경제 지원 현황¹⁾

- 유럽투자은행은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투자로 농산업 및 바이오기반경제 (bioeconomy)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고 있음.
 - 바이오기반경제는 환경 보호 및 자원 효율성 개선,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기업의 활동을 의미함.
 - 유럽투자은행은 유럽연합의 7차 Environment Action Plan에 따라, 농업 및 바이오기반경제 사업을 하는 직접 고용 3,000명 미만의 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기업에 대출을 진행함.
- 유럽투자은행은 농산업 및 바이오기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심사 후 제공하고 있음.
 - **(대상)** 바이오기반경제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1,500만 유로 이상 2억 유로 이하의 3년에서 4년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규모)** 최소 750만 유로에서 최대 5,000만 유로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함.
 - **(상환 기한)** 최대 12년까지 대출금 상환 기간 설정이 가능함.
 - **(이자율)** 유럽투자은행의 기준에 맞춘 유리한 이자율 조건 제시함.
 - **(장점)**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지원이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져, 프로젝트가 생존(viability)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함.
- 이와 같은 투자는 단순히 농업생산 부문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전후방 산업에 투자되어 공급 사슬 전체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유럽투자은행의 "Agriculture and Bioeconomy Programme Loan"(2020.4.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eib.org/en/index.htm>).



국제 농업 정보(2020. 10.): 유럽

- **[폴란드]** Mlepol사의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시설 설비에 5,000만 유로의 차관을 지원하였음.
 - 생산 및 보관 시설 개선에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화력발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음.
- **[아일랜드]** 치즈 생산 업체인 Carbery사의 브렉시트 대응을 위한 생산 설비 확충에 3,500만 유로의 대출을 실시함.
 - 아일랜드의 치즈 생산 업체인 Carbery는 생산하는 치즈의 60%를 영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로 인한 변화가 예상되자, 제품 및 수출 다각화를 계획함.
 - 아시아 지역으로의 치즈 수출을 위하여 기존에 생산하던 체다 치즈 외에도 모짜렐라 치즈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7,500만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유럽투자은행은 이 중 3,500만 유로의 금액을 대출해줌.
 - 새로운 치즈 생산 시설은 아일랜드 농민 1,200명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작물 및 가축의 영양 관리 사업을 하는 Roullier Group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음.
 - 맞춤형 영양관리 제품 생산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및 축산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9.21.).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독일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²⁾

- EU 집행위원회 소속의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³⁾는 독일의 농산업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독일은 미국과 네덜란드에 이어 전 세계 3위 규모의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임.
 - 2016년 기준, 독일 내에는 약 275,000개의 농업 기업이 있으며, 940,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음.

2) EU 집행위원회의 “Are Agri-Food workers only exploited in Southern Europe - Case studies on migrant labour in Germany, the Netherlands and Sweden”(2020.9.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3)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을 번역함.



국제 농업 정보(2020. 10.): 유럽

-정규노동자 중 외국인의 비중은 농업 및 관련 산업에 약 24.2%, 임업에 17.3%, 축산에 33.0%, 그리고 조경 관리 종사자가 20.6%로 나타남.

■ 독일 내 농업에 종사하는 계절 근로자는 평균 300,000명이며, 최근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 2016년 기준 약 286,300명의 계절 근로자가 농업에 종사하였음.

-독일 계절 근로자의 대부분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이주해 왔으며, 이외에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남동부 유럽이 주요한 노동 공급 국가임.

-계절 근로자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55%, 여성이 45%로 균형을 이루지만, 비계절 이민노동자는 남성이 64%로 나타남.

| 독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신지 국가 변화(단위: %) |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폴란드	85.9	84.7	77.9	76.4	68.1	63.6	60.3	-
루마니아	8.2	10.0	16.9	19.0	26.8	31.7	34.7	93.5
기타	5.9	5.3	5.2	4.6	5.1	4.7	5.0	5.6

■ 계절 근로자는 노동집약적인 아스파라거스 생산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도입으로 인하여 많은 농가들이 타격을 입음.

-노동집약적인 생산이 필요한 아스파라거스는 2018년 기준, 23,400ha의 농지에서 133,000톤이 생산되었음.

-2015년 계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자, 농가는 이전에는 시간당 4~5유로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지만, 7유로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됨.

-임금이 생산비의 절반을 구성하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는 최저임금 도입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농가들은 생산량을 감소시킴.

-동시에, 계절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아스파라거스 농가들은 타 국가에서의 인력공급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및 보호가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함.

-**(사회보장제도 적용 누락)** 계절 근로자들은 대부분 1년에 70일 혹은 3달 이하로 근무하는 한계 고용 (marginal employment) 형태로 고용이 되는데, 고용주는 이들을 고용할 때, 의무사회보장금을 면제받도록 보장받아, 임금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고용 인원도 증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국제 농업 정보(2020. 10.): 유럽

해택이 발생하는 정책이지만, 고용된 계절 근로자들이 70일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의무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

- **(하도급 고용)** 축산에서는 독일 외부의 하도급 업체가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근로 계약이 일반적이며, 2015년과 2017년에 축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및 보호 법안이 발효되자, 축산 이주노동자들은 대량의 이직을 경험하게 됨.
- **(이민자 고립 유도)** 이민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여권을 빼앗는 경우도 발생함.
- **(불공정한 계약 방식)** 구두계약을 진행하거나, 독일어로 된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민자들에게 불공정한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서 사본 또한 제공하지 않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스마트 마을과 농촌 디지털 전환⁴⁾

- EU 집행위원회 소속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⁵⁾는 스마트 마을과 농촌 디지털 전환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스마트 마을 전략이란, 도시와 농촌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민, 이해관계자, 정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촌개발 사업임.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수요 파악, 공동농업협정의 9가지 목표 달성⁶⁾에 대한 SWOT 분석, 필요한 예산 등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디지털 전환은 배제(excluded), 연결(connected), 결합(engaged), 경험(experienced), 참여자(player)의 5가지 단계로 진행됨.
 -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은 ERUDITE와 CARPE DIGEM INTERREG⁷⁾ 등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두 프로젝트에서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5가지 단계로 구분하였음.

4) EU 집행위원회의 “Smart Villages and rural digital transformation”(2020.10.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enrd.ec.europa.eu/>).

5)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을 번역함.

6) 공동농업협정의 9가지 세부 목표는 소득 확보, 경쟁력 강화, 식품공급사슬의 균형,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 농촌 세대전환 지원, 농촌 지역의 활력 확보, 식품 품질 및 안전 확보로 구성됨.

7) 각각 약 200만 유로와 170만 유로 규모의 연구개발사업으로, 5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농촌에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보급하고자 함.



국제 농업 정보(2020. 10.): 유럽

- **(배제)** 인터넷 연결 및 사용 역량, 공공 및 사적 서비스 등이 부족한 상태
- **(연결)** 기본적인 광대역 인프라 설치 및 사용 교육 시행
- **(결합)** 보편적인 디지털 서비스 사용과 교육, 공공 서비스 및 사업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확보
- **(경험)** 광섬유 연결망 설치, 사업 및 시민 주도의 디지털 혁신 역량 확보, 대도시권과 동일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수준 확보
- **(참여자)** 혁신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및 사회 구조 정착, 마을 데이터 공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파트너의 역할 수행

■ 디지털 전환의 사례로 프랑스의 Lormes 마을이 있으며, 5단계의 디지털 전환의 과정이 약 20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음.

- 프랑스의 Burgundy 지방의 마을인 Lormes는 인구 1,300명의 작은 농촌 마을이지만, 2000년 초부터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2017년에는 미래마을사업(Village of the future)의 대상이 되는 성과를 냄.
- 2003년부터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투자를 시작한 Lormes는 Digital passport for everyone 프로젝트, Rural Hub⁸⁾인 'Portes du Morvan' 설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전환을 실시함.
- Lormes 마을의 사례는 단순히 디지털 교육과 인프라 설치만이 농촌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계 유지와 농촌 마을이 지역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기간에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음.

- CARPE DIGEM 프로젝트의 일부인 슬로베니아의 4PDIH⁹⁾는 시각화된 쌍방향 의사소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자체 간 온라인 협업을 지원함.
- '도움을 주는 손'(Helping hand) 웹서비스를 통하여, 격리 기간 중 식품 및 약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 아동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를 무상으로 연결해주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10.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농촌 지역에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는 사무실, 기술 지원, 화상회의실, 장비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

9)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 Digital Innovation Hub 의미함.